



소비부진으로 '매기'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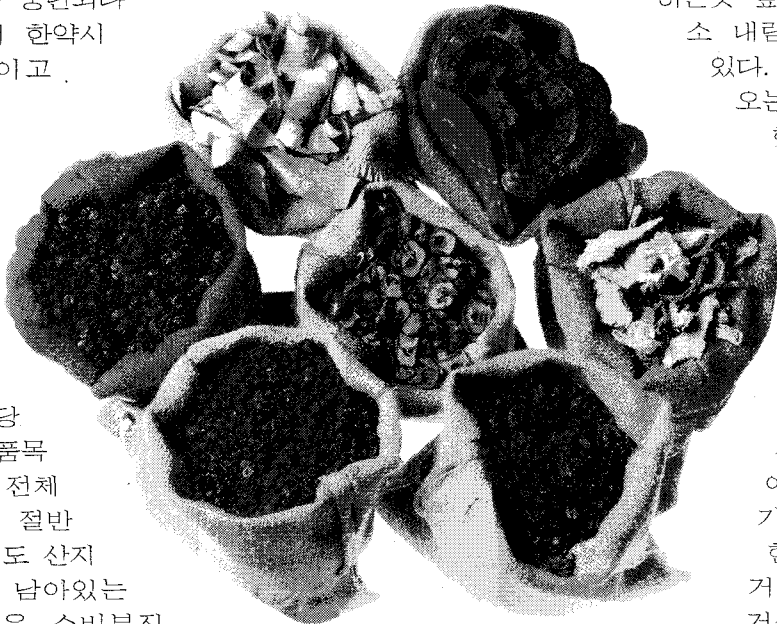
황기 당귀 천궁 백하수오등 재고량 많아 결명자 현호색 등은 물량부족, 상보합세

○...극심한 소비부진으로 거래가 중단되다시피 하면서 한약시장은 물론이고 산지에서의 매매도 거의 끊긴 상태다. 중상들의 가수가 자취를 감추면서 황기, 당귀 등 몇개품목의 경우는 전체 출하물량의 절반 이상이 아직도 산지에 재고로 남아있는 실정. 이같은 소비부진 현상은 새학기 입학 등록금 준비와 대통령 취임식 행사가 몰린 2월중순 이후 더욱 두드러지는 경향.

○...시세형성 조차 어려울 만큼 거래 부진한 가운데 결명자, 천화분, 현호색 등 생산량 부족으로 물량공급이 달리는 몇몇 품목이 다소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산 한약재가 약보합세를 이루고 있다. 결명자는 전라도 일원, 현호색은 전북남원, 충북 영동지역 등에서 천화분은 제주도에 서만 소량 출하돼 나오고 있다.

○...황기, 당귀 천궁 등 다량소비품목의 경우 예년의 소비량을 웃돌만큼 생산량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시세하락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IMF 한파까지 가세해 소비심리 위축으로 한약재 시장경기를 더욱 얼어붙게 하고 있는 것.

한 시장관계자에 따르면 "값이 큰 폭으로 떨어진 하수오의 경우도 개량종의 보급으로 생산량이 예년보다 크게 증가, 향후 3년은 생산안해도 국내 수급에 차질이 없을 정도"라고 귀뜸. 지난해 상반기때 만해도 근당(6백g 기준) 8천~1만원 선까지 도매거래되던 백하수오 시세가 최근 2천원 선으로 추락했다. 소비량이 그리 많지 않은 품목인데다



생산량은 예년의 3배이상 증가한 대신 소비는 부진하기 때문이다.

○...한편 국내산과 유사한 형태의 수입약재가 국산 시세의 절반값에 유통되고 있는 것도 국산약재가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박하, 황기, 결명자 등이 그 대표적인 품목들. 토반하와 흡사하게 작업된 수입반하가 근당(6백g 기준) 6천원 선에 유통됨으로써 근당 2만원까지 거래되던 토반하 시세는 최근 산지에서 1만4천원에도 구매가 없는 실정이라고.

몇개 품목을 중심으로 살펴본 산지동향과 시세는 다음과 같다.

결명자 최근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국산 결명자는 상품(上品)을 구하기 힘들다. 간혹 산지에서 조차 수입산과 섞여 유통되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산지에서 거래되고 있는 결명자 도매시세는 근당(6백g 기준) 1천8백원 선. 상품시세는 이보다 높지만 물량이 귀하다.

맥문동 지난 하반기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하던

맥문동시세가 울들어 주춤하는 듯 싶더니 최근 다소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오는 4, 5월이면 햇것이 쏟아져 나올 것을 감안한 업자들이 창고에 쌓아뒀던 재고 물량을 하루빨리 처분할 목적으로 시세보다 싼값에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산지에서 거래되고 있는 거심 맥문동도 매가 가격은 밀양산이 근당(6백g 기준) 1만6천원, 청양산이 1만4천~1만4천5백원 선으로 지난 1월말 시세보다 2, 3천원 내렸다.

박막은 1만3천원 선이며 물량은 그리 많지 않다고. 맥문동은 앞으로도 다소 내림세 보일 전망이다.

택사 내림세다. 현재 산지 거래되고 있는 택사 도매시세는 근당(6백g 기준) 2천5백원(통), 3천원(절)이다. 지난 연말 이후 1, 2월 햇것이 본격 출하 유통되면서 시세도 하향곡선을 그려가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물량부족으로 택사값이 상승세를 타자 그해 재배면적도 예년보다 증가.

대풍을 이룬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세는 앞으로 더 내릴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작약 작약재배면적이 갈수록 감소추세에 있고 상품(上品)작약도 귀하다. 시세도 중품은 보합세인 반면 물량이 귀한 상품은 다소 오름세.

현재 산지에서 거래되고 있는 작약 도매시세는 근당(6백g 기준) 3천~3천5백원, 하품이 1천 6, 7백원 선이며, 상품은 근당 4천~5천원 선이나 물량 구하기 어렵다.

황기 거래 부진한 가운데 보합세다. 현재 거래되고 있는 근당(6백g 기준) 산지 도매시세는 1년근 소황기가 4천~4천3백원 선, 3년근 중황기가 1만5, 6천원 선이며 6년근 대황기가 2만5, 6천원 선이다. 보약재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3, 4월경이면 황기 값이 다소 오름세를 보이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지만 보파리 물건

으로 유입된 수입황기까지 극성을 부리면서 시세회복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최근에는 육안으로 구분이 어려울 만큼 국내산 1년근과 유사하게 작업된 수입황기가 절단안된 상태의 통자로 근당(6백g 기준) 4천5백원 선에 버젓이 국내유통되고 있다고.

<문>

시장인망

수요없어 '덤핑' 거래도

IMF 이후 수입약재값이 폭등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금경색으로 실구매가 없어 수입업자들로서는 약재값 상승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최근엔 환율상승으로 값이 폭등한 수입한약재가 덤핑거래되고 있는 기현상을 낳고 있다. 시장경제 위축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업계에서 당장의 자금회전을 위해 현 시세보다 30~40% 포인트 하향조정된 IMF 이전 가격에 내놓고 있는 것.

거의 매기가 없는 상황에서 국산약재 시세는 다소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동약령시장내 도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 상인은 "불경기던 지난 연말에도 하루 열씩 이상씩 들어오곤 했던 약재주문량이 2월중순경 부터는 다섯씩정도가 고작"이라고. 그래도 시장에서는 보약재를 많이 찾는 3, 4월이면 지금보다는 다소 경기가 풀리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 눈치다.

수입약재 시세 동향

IMF 이전으로 '회귀'

최근 수입약재 시세는 환율인상 폭만큼 폭등했다가 수요가 없자 다시금 떨어지는 등 들쭉날쭉이다. 당뇨병 치료제로 인지도가 높은 백강잠은 환율인상전 근당(6백g 기준) 1천6백원 선에서 최근에는 4천~4천3백원 선으로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육종용은 근당 1만원선까지 폭등했다가 수요가 이에 못미친듯 8, 9천원대로 다소 하향조정된 상태다.

근당(6백g 기준) 3천5백원 선이던 산조인은 최

근 3천원 선으로 하락하는 한편 만삼은 근당 3천5백원 대에서 4천원선으로 다소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초과, 저령 등의 물량이 다소 귀하지만 소비량이 그리 많지 않은 품목. 환율인상 이후 수입약재값이 폭등했다고는 하지만 전반적인 한약소비가 급격히 감소한 가운데 특별히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수입약재는 거의 없으며 시세도 IMF 이전으로 다시 회귀해 가고 있는 추세다.